



日 대형손보사, SRCC 특약의 신규 계약을 중단

박정희 선임연구원

■ 일본 대형손보사들이 중국에서의 폭동과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보상하는 SRCC¹⁾ 특약의 신규 계약을 중단하기로 결정함.

- 이는 지난달 중국에서 발생한 반일 시위로 현지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의 피해 규모가 최대 100억 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자 배상금 지급에 대한 보험업계의 부담이 커진데 기인함.
 - 도쿄해상, 손보재팬, 미쓰이 스미토모해상 등은 중국에서 반일 시위가 심화된 직후 피해조사 우선과 보험금 지급 검토라는 명목 하에 폭동 특약과 신규 계약을 중단하고 있음.
 - 현재 업계는 해당 업체의 피해를 조사 중이며 신규 계약은 내년 이후에나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, 계약 갱신 시 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음.
- 한편,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은 8월 말 기준으로 14,394개사이며, 이들 중 대부분이 시설이나 설비에 SRCC 특약이 포함된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.

■ 일부 기업에서는 내년도 보험 계약 갱신 시 보험료 상승 수준에 따라 기업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, 반일 시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특약 보장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임.

- 이번 시위대 습격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기업은 유통업체 이온그룹의 자스코 이오지마점으로 그 피해액은 7억 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액 전부를 보상받을 것으로 보임.
 - 이에 세계적인 재보험사 스위스리는 일본기업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시위대의 습격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일본 기업에 대해서는 재보험료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.

(산케이 외, 10/1)

1) 손해보험에서 폭동과 파업에 의한 공장이나 점포의 파손 피해, 파괴에 따른 매출 감소액을 보상 받을 수 있는 파업위험특약으로, 'Strike(파업)', 'Riot(폭동)', 'Civil Commotion(소란)'의 머리글로 구성된 신조어임.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 진출하는 일본계 기업들이 치안 악화와 정치 불안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손해보험 SRCC 특약에 가입.